

10/4/20

설교 제목: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7 장 1-33 절

- (창 27: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이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 (창 27: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 (창 27: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 (창 27: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 (창 27: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 (창 27:6)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 (창 27: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 (창 27:8) 그런즉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 (창 27: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 (창 27:10)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 (창 27:11)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 (창 27: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 (창 27:13)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 (창 27:14)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 (창 27: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 (창 27: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 (창 27: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 (창 27: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 (창 27: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 (창 27: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 (창 27: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 (창 27: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 (창 27: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절관주** 창 27:16

야곱이 가로챈 장자의 축복

- (창 27:24)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 (창 27:25)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 (창 27: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 (창 27: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 (창 27: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 (창 27: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절관주** 창 12:3
- (창 27: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 (창 27: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절관주** 창 27:4
- (창 27: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 (창 27: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절관주** 창 28:3

본문은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는 자신의 뜻과는 달리 차자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를 축복하려 했으나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가지 의문점을 남겨줍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속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은 축복이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아울러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받아간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축복을 즉각 취소하고 에서에게 주면 되었을텐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먼저 당시의 이삭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창 27: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으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창 27: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창 27: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창 27: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창 27: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창 27:6)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창 27: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창 27:8) 그런즉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창 27: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창 27:10)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창 27:11)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창 27: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창 27:13)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삭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는 에서를 불러 자신을 위하여 사냥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그 별미를 먹은 후 네게 마음껏 축복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서 대신에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별미를 대접하기 위해 들로 사냥을 떠나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떼에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테니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가 드시게 한 후 형 에서를 대신해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야곱이 혹시 그 일이 아버지에게 탄로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자 리브가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리브가가 시킨대로 따릅니다.

(창 27:14)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창 27: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창 27: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창 27: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창 27: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창 27: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창 27: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창 27: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창 27: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창 27: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염소 새끼를 끌어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끌어온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 입히고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에는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려 주어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시키는대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이삭은 사냥을 해 음식을 만들어 오기까지의 시간과 목소리를 듣고 미심쩍어 했으나 육의 눈과
영의 눈이 모두 어두워진지라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
자신의 앞에 있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창 27: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창 27: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 27: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실 것과 열국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해 주실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축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이삭이기에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연히 야곱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야곱 대신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 다 영의 눈이 어두어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같은 망령된 행동으로 인해 후에 이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특히 당사자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이삭 앞을 나가자 곧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사냥해 온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창 27: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창 27: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은 자기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축복을 번개 할 수 없다고 야곱이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창 27: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말아들 에서로소이다

(창 27: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요?

그렇다면 야곱을 불러 자신이 조금 전에 한 축복을 모두 취소하고 에서에게 그 축복을 돌려주면 되지 않나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계승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지요.

야곱이 술수를 써서 하나님의 복을 계승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축복을 계승해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야비한 행동은 이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화만 불러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뜻과 술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오나 실수를 범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으며 때로는 과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자존감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언약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